

순천시 '최첨단기업 투자 유치 1번지' 급부상

한화·포스코 등 잇단 유치 500여명 일자리창출 효과

순천시가 이차전지소재사업상생·협력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 지역 청년들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한화, 포스코 등 글로벌 최첨단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투자유치 1번지'로 급부상 중이다. 순천에 투자기업이 몰려드는 이유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선과 호남선이 십자로 연결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됐고 광양항·울촌항과 인접해 있어 남해안 교통·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순천대를 포함해 관내 4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첨단산업 인재들을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수급이 가능하고 직주락

(職住樂)이 가능한 정주 여건은 경영주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친화 성장도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상반기 5개 기업 8500억원의 투자유치를 끌어냈고 500명의 고용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치에 이어 6800억원 규모 '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선정은 대기업과 정부가 인정한 투자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최근 5700억원 규모의 포스코리튬솔루션(주) 투자협약을 통해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리튬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이차전지소재사업을 활성화해 '전남 이차전지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과 미래첨단소재산업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을 찾는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순천시가 최근 포스코리튬솔루션(주)와 이차전지소재사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순천시 제공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지역 상생·발전하는 기업 친화 정책에 나설 것"이라며 "2023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이

후 최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남해안 초광역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협약 구례군, 전기 에너지 지속 생산

구례군은 최근 양수발전소 유치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구례군과 구례군의회, 한국중부발전 3개 기관이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을 위해 체결했다.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수발전소 건설은 약 1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건설 기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구례군은 군의회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지하도상가 빈 점포 입점 모집 순천시, 20~21일 접수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1일까지 소상공인들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하도상가(씨내몰) 빈 점포 13개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점포는 일반점포 7개소(식음료점포 1개소 포함), 뷰티·힐링점포 2개소, 청년점포 4개소다. 일반점포의 경우 가격제한사에 의해 최고가 낙찰자가 선정되는 일반경쟁 입찰로 이뤄지며 뷰티·힐링점포, 청년점포의 경우 제안공모에 따른 서면평가로 선정된다.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조회 가능하며 20~21일 오후 6시까지 지하도상가(씨내몰) 관리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씨내몰 관리사무소(061-749-3580), 순천시 경제진흥과 지역경제팀(061-749-58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진도 서망항, 봄꽃게 위판 한창

전국 꽃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전남 진도 해역에서 '봄 꽃게 잡이'가 한창이다. 진도 서망항은 조도면 외병·내병도, 관매도 일원에서 갯잡이 올린 봄 꽃게 위판으로 북적이고 있다. 이 곳에서는 매일 20~30척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해 적당 250~300kg의 꽃게를 잡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꽃게는 이날 현재까지 500톤, 위판고는 140억원을 기록했다. 1일 위판량은 3~4톤에 달한다.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인 진도군은 지난 2004년부터 바다 모래채취 금지와 함께 매년 1억원 이상 꽃게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왔다. 통발로 잡아 올려 다른 지역 꽃게보다 상품성이 좋아 구입을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매 위판가격은 kg당 3만원~4만원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전남도가 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올해 두번째로 연 '전남 여성일자리 박람회'에 1000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해 취업지원 상담과 체험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400명 취업 예약 '성황'

전남도가 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한 '2023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마무리됐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박람회엔 목포·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완도·진도·신안 9개 시·군이 함께 참여했다. 160개 구인 기업이 400여명 채용을 목표로 진행된 가운데 여성 구직자 1000여명이 방문해 높은 구직열기를 확인했다. 박람회는 현장면접관·취업컨설팅관·창업체험관·박람회운영지원관·주제관 등 취업지원 상담과 체험 등 실용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박람회운영지원관에선 찾아가는 취업 지원 버스,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홍보 커피트럭을 지원했다. 주제관에선 이직과 전직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 재도약할 수 있는 플랫폼노동 일자리상담관을 운영하고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홍보했다. 중장년 경력 개발, 새출발 카운슬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은 중장년 여성에 호응을 얻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우

수 기업은 유능한 여성 인력을 채용하는 장이 되고 있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해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잇는 취업의 장으로 자리잡은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상반기 순천·목포에 이어 하반기엔 10월18일 여수, 10월26일 나주 등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지난해 4개 시에서 개최한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엔 621개 구인 업체가 참여해 516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했다. 박근혜 기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혜란)은 7일 나주시 위탁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모집된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4기 단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19일까지 6회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여성정책 이해 교육을 시작으로 성평등 및 도시재생 공간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홍보물 모니터링 지표 만들기 등 현장 역량 강화 등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간이 만료돼 신규 협약 준비 중인 나주시는 지난해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라는 명칭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변경해 시행되고 있다. 참여단 임기 2년동안 나주시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 불편·불합리한 사항 개선 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역량강화 교육이 행복한 나주를 만들어가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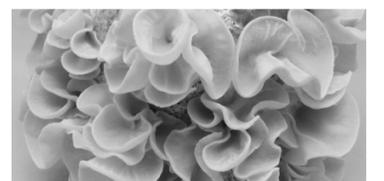
무안군, 9~11일 갯벌랜드서 황토갯벌축제

무안군(군수 김산)과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재)는 9~11일 무안 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황토갯벌 1㎡의 가치'를 주제로 무안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갯벌 속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건강한 먹거리, 낮에는 검은 비단 무안 갯벌의 장관, 밤에는 갯벌 하늘을 수놓을 500대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지는 등 불거리, 체험 거리를 선보인다. 올해는 서울대 김종성 교수와 '황토갯벌 푸른 탄소(블루카본) 토크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박사의 특별 강의 '갯벌 맨발 걷기 프로그램'이 열린다. 사시 전시, 관람이 가능한 생태 갯벌과학관과 해상안전체험관이 꾸며진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낙지광장을 체험구역으로 구성, 장애물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물놀이 운동회와 댄스 전문 DJ와 함께하는 '물싸움 war'도 선사할 예정이다. 낙지·장어 잡기, 농게 잡기 체험이 갯벌체험장에서 펼쳐지고 황토밭에서 양파 캐기, 고무마 순 심기 체험도 이뤄진다. 차민욱 주방장과 함께하는 소풍 음식 만들기 체험에서 무안 양파소스를 활용한 연저육버거를 만들고 남도음식명인 주금순 명인과 양파김치 만들기 진행 된다. (사)대한한돈협회 무안지부 한돈 시식회에서는 무안의 맛을 선사한다. 무안=김행인 기자

흰 목이버섯 '새얀' 북미진출 전남농기원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자체 육성한 흰색 목이버섯 '새얀'을 비롯한 버섯 신품종을 북미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목이버섯은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 개별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베타글루칸·총폴리페놀·단백질·칼슘·비타민 D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있다. 북미지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새얀' 품종은 지방 분해력이 우수한 버섯으로 특허출원된 유일한 흰색 품종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우수한 버섯 품종을 기반으로 성분분석과 제품 개발을 통해 산업화와 북미지역 진출을 추진한다. ㈜씨아이인터내셔널(CIG), ㈜나츄럴코리아와 지난 4월 제휴를 맺고 K-food, K-beauty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한류 열풍과 함께 성장하는 비건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버섯산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기자